

영시 수업에서의 해석과 번역의 문제

이 삼 출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한국 대학에서 영시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해 실제 수업과정에서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텍스트 해석 과정에 개입되는 언어학적, 문화적, 문학적 변수들을 확인한다. 답론의 구성에서 내용의 의의에 이르기까지 시 텍스트는 산문을 포함하여 다른 답론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글을 읽는 것이 필수적인 영문과 학생이 시를 읽기 싫어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학습자가 시를 읽으면서 실제로 미학적인 쾌락을 느끼고 구체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수업의 환경에서 시 텍스트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특히 오역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학습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교수자의 개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시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영어 문장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상 일차적 의미 혹은 축자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한 언어적, 문화적, 예술적 경험이 생성, 변용, 축적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오역을 일종의 문화번역의 경우로 간주하고 한국 대학 영시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 텍스트를 선정, 학습자들이 오역을 생산하는 기제와 그 기제의 원인을 규명한다.

주제어 : 대학 영시수업, 문화번역, 오역, 언어학적 요인, 문화적 요인

I.

영문학 과정에서 시를 읽는 과목의 수요가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되는 시 관련 과목의 수가 줄고 있고, 이제 시 과목을 하나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하는 영문학 전공자가 많아지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이른바 ‘실용영어’에 대한 수요가 강박적으로 커지고 있다. 졸업자격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최소수강학점수도 낮아지고 있다. 대학 자체가 취업준비생 집합소로 되면서 생겨난 행정적 환경변화다. ‘88 세대’의 고단한 삶 자체가 ‘시 읽는 여유’를 허락지 않는 탓까지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시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진 학습자가 많다는 점일 것이다. 이들에게는 영시를 읽는 것이 만만하지 않고, 따라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시수업을 수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시 연구」(“The Study of Poetry”)에서 아놀드(Matthew Arnold)가 제안한 ‘시금석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시를 읽는 것이 대학 인문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를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시는, 다시 아놀드의 말을 빌자면, “최상의 텍스트”(168)이기 때문이다. 담론의 구성에서 내용의 의의에 이르기까지 시 텍스트는 산문을 포함하여 다른 담론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시금석론’의 핵심이다. 이 방식이 얼마나 유효한지는 차치하더라도, 다양한 글을 읽는 것이 필수적인 영문과 학생이 시를 읽지 않고자 한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그러므로 이런 ‘영시 수업의 위기’는 끝나야 한다.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와 학습자의 안이한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은 맘 편한 길이긴 하지만 그리 효과적인 길은 못 된다. 그보다는 학습자가 시를 읽으면서 실제로 미학적인 쾌락을 느끼고 구체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이 길을 찾는 것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학습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어려움을 분류하고 그 근원을 찾아낸다면 아예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 줄 수는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그 어려움의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길의 단초는 수업의 여러 국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실제 수업의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시 텍스트를 어떻게 번역하는

가를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데가 없을 것이다. 물론 번역, 그것도 독자적인 번역이 시 수업의 최종 결과물이 될 수는 없다. 외국문학부 교과에서 시작품을 학습하는 것은 단순한 영어해독력과 구사력 이상의 것을 지향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영어 문장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상 일차적 의미 혹은 독자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매우 복합적인 언어적, 문화적, 예술적 경험이 생성, 변용, 축적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전문번역가에게는 물론 이겠지만, 누구에게든 번역 그 자체는 이미 고도의 지적 작업이다. 홍영택의 지적처럼 번역은 “원전의 언어 속에 담겨있는 모든 문화적, 역사적, 기호학적, 의미론적 의미”를 포함하여, “심지어는 그 작품의 장르적 배경까지도 면밀히 이해할 수 있는 주의 깊은 독서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인 것이다. (202)

번역 과정의 복잡성은 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변형의 불가피성에 주목함으로써 번역의 능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문화번역 이론의 기초가 된다. 윤선경이 「시와 번역: 창조적인 번역의 의의」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낭만주의자들의 ‘시인 천재론’ 이래 번역은 기계적인 작업이란 오해를 받아왔다. 무엇보다 텍스트의 아우라를 해치는 ‘번역’의 방식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이런 오해를 대변한다. 하지만 후기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의 세례를 받으면서 번역은 전통적인 홀대의 대상에서 벗어나 문명론이라는 거대한 담론에서 커다란 역할을 맡게 된다. 윤조원이 「번역자의 책무: 벤야민과 문화번역」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번역가의 과제」(“The Task of a Translator”)를 원천으로 확장되어온 ‘문화번역’의 이론들에서 번역은 번역가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이 강조된다. ‘보환성’(supplementality)과 ‘차연’(differant) 등 언어의 내적 특성에 기초한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새로운 번역관을 보여주는 ‘변형’(transformation) 개념 역시 번역 과정의 생성적 기능을 강조한다. 한편, 후기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번역자의 이념과 정치적 문맥의 개입을 상정하는 앙드레 르페브르(André Lefevre)의 ‘다시쓰기’(rewriting)는 탈식민주의 번역이론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르페브르 식의 개념화는 번역 자체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이동을 상정하는 만큼, 특히 탈식민주의적 번역론에서 활발하게 논의된다.

「문화번역의 정치성: 이국성의 해방과 이웃되기」에서 이명호가 지적하듯이 테자스비니 니란자나(Tejaswini Niranjana), 레이 초우(Rey Chow), 호미 바바(Homi Bhabha) 등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번역을 무엇보다 문화 간 접촉, 이동, 횡단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규정한다. 이들이 번역을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 혹은 ‘재번역’(re-translation)이라 부르는 것은 번역 과정에 불가피하게 개입되는 불균등한 권력관계와 혼종적 문맥으로 인해 원본이 탈구되고 전복되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텍스트가 생산되는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부 영시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시를 읽으면서 겪는 어려움을 번역과정을 통해 규명하는 작업은 문화번역 이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부 학생이 원전의 해체를 통해 원작 속에 잠재되어있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번역을 생산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문이 주목하는 학부 학생의 오역은 그 자체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의 번역에 까지 이르지 않는다하더라도, 일종의 문화번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역에도 역시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언어학적 변수들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오역은 해석과정의 결과물이다. 결과물로부터 해석과정의 문제를 확인하는 작업은 환원론적일 수 있지만,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수업과정에서는 억측과 짜맞추기식 설명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은유를 이해하는 과정을 은유 생산 과정을 되밟는 것으로 설명한 코올리지(Samuel Taylor Coleridge)나 신화분석을 신화 제작 과정을 역추적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르뜨(Roland Barthes)의 작업을 본받아 실제 오역의 경우들에 작용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교수자가 학생들이 시의 해석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를 읽는 과정에서 학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의 종류가 무엇인지,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자료가 대부분의 경우를 다 담아내지도 못할 것이며, 정리된 사례들의 근원이 궁극적으로 규명되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작업은 시 텍스트 자체, 그리고 텍스트 해석의 다양한 단계 혹은 층위에서 어려움들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시 텍스트에 접근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습관으로부터

문화적, 이념적 특징에 이르기까지 규명해보려 한다는 점에서 시론으로서의 의의는 있을 것이다.

II.

해석이 벌어지는 층위는 다양하다. 텍스트 결의 기본단위인 어휘에서부터 화용론의 핵심인 화자의 어조에 이르기까지 담론을 소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해석에 이르도록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층위를 일일이 주목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학부 영시 수업은 다중을 대상으로 하고 일정한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견적 해석 작업을 권장하는 수업모델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수가 해석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며 특정 해석으로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을 재빨리 포착하고, 그 어려움이 어떤 원인 혹은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발견적 해석과정의 흐름을 최소한으로 방해하는 방식일 것이다. 일천한 것에 불과하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해석을 낳게 되는 기제의 근원은 대부분 오역에서 시작한다. 축자적인 번역을 주요 수업활동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텍스트 해석상의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수단으로 이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다. 번역은 해석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해석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형상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오역을 활용하며 학생들의 해석과정을 역추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휘와 문장구조와 관련된 언어적 문제, 대가의 영향이나 선행매체의 영향, 그리고 세대적 특징인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는 문화적 문제, 마지막으로 문맥 혹은 문학관습과 관련된 것 등으로 대별된다.

1. 언어적 문제: 문장구조, 지시관계, 단어의 뜻과 어원

1) 문장의 구조

수업에서 가장 흔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다. 산문에서와 달리 운율과

리듬을 맞추기 위해 문장의 구조가 도치된 부분이나 분사구문, 동격구문, 관계절 등의 삽입어구가 문장의 중간에 들어 있어 구문의 구조가 복잡한 부분에서는 단순한 오역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의미한 번역 자체가 힘들어지기도 한다. 영시의 기본적인 운율과 정형시의 형식적 특징 등에 대한 이해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완화될 수 있는 종류의 어려움이다. 각운의 배열이 특히 까다로운 정형시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셰익스피어의 73번 소네트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나날을 그대 내게서 볼 수 있으리.
고운 새들이 지저귀던, 허나 폐허가 되어 텅 빈 성가대석처럼,
추위를 기다리며 떨고 있는 나뭇가지 위에,
누렇게 시든 잎 몇 달려 있는, 혹은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때를,
그대 내게서 보고 있나니.
해진 후 서쪽 하늘에서 사위어가는 날의 희미한 빛,
죽음의 배다른 동생, 만물을 잠으로 봉인하는
검은 밤이 서서히 걷어가는 그런 어스름한 빛을.
그대 내게서 빨간 잉결을 보고 있나니.
불길을 피워올리게 했던 바로 그 기세에 의해 소진되어
마침내 꺼져버리게 될 곳, 바로 자신의 죽음이 일어날 침상인
채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타오르고 있는 그런 모닥불의 잉결.
그대 이 모두 알고 있기에, 그대의 사랑은 더욱 열렬해집니다.
머지않아 그대가 떠나보낼 것이기에.

① That time of year thou mayst in me behold
When yellow leaves, or none, or few, do hang
Upon those boughs which shake against the cold,
Bare ruin'd choirs, where late the sweet birds sang.
In me thou seest ② the twilight of such day
As after sunset fadeth in the west,
Which by and by black night doth take away,
Death's second self, that seals up all in rest.
In me thou seest ③ the glowing of such fire

That on the ashes of his youth doth lie,
As the death-bed whereon it must expire
Consumed with that which it was nourished by.

This thou perceiv'st, which makes thy love more strong,
 To love that well which thou must leave ere long.

먼저, 의외로 ①That time of year를 부사구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시간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어구가 전치사 없이 부사구로 쓰일 수 있다는 문법이 너무 빨리 적용된 경우다. When 이하의 관계절이 수식하는 명사구로서 behold의 목적어임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이 구문이 도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운을 맞추기 위해 behold가 행의 끝에 가야하고, 또 약강 보격에 맞추기 위해 약음인 thou와 in을 연속적으로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in me가 조동사 mayst와 정동사 behold의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는 설명을 곁들임으로써 이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다. 이 구절을 부사구로 착각하기 쉬운 다른 이유로 boughs와 동격으로 제시된 명사어구 Bare ruin'd choirs가 behold의 목적으로 착각하기 쉽도록 독립된 행을 이루며 따로 떨어져 있다는 점도 있다.

그런가 하면, ②the twilight of such day/As after sunset...에서는 day가 As의 선행사라는 것을 놓치고 As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두 줄 밑의 끝음 rest와 각운을 맞추기 위해 after sunset이 As 바로 다음에 놓여 정동사 fade와 주격관계대명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동이다. 이렇게 되면 Which의 선행사가 the twilight이라는 것도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③the glowing of such fire...에서는 such that 구문인지 such as 구문인지 헷갈려서 오역을 하게 된다. 역시 주격관계사 That과 자동사 doth lie 사이에 on the ashes of his youth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인데, the ashes of his youth의 비유물을 유도하는 like와 같은 기능을 하는 As를 lie as로 해석하여 “...로서 놓여 있다”는 식의 오역을 만들어낸다.

2) 드러난 지시관계

명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영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어에서

는 동일한 명사의 반복이 그리 문제되지 않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는 영어 텍스트에서 대명사의 지시관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대개 대명사 바로 앞에 여러 개의 명사가 있어 그 중 어떤 것이 지시되는지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지시되는 명사와 지시하는 대명사 사이에 삽입어구가 길게 들어 있는 경우 발생한다. 이 두 가지 경우가 겹쳐서 발생하는 텍스트로는 헬리의 「오지만디어스」(“Ozymandias”)를 들 수 있다.

[...] 근처, 모래 위,
 반쯤 파묻혀, 부서진 안면상이 있더군. 찡그린 표정은,
 주름진 입술하며, 추상같은 명령을 머금은 냉소로 보아,
 조각가가 그의 야망을 아주 잘 헤아렸단 걸 알 수 있었지.
 야망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야, 그렇게 생명 없는 조각들에 각인되어,
 그걸 드러내준 조각가의 손과 품어주었던 심장이 사라진 오랜 후에도.
 [...]

[...] Near them, on the sand,
 Half sunk, a shattered visage lies, whose frown,
 And wrinkled lip, and sneer of cold command,
 Tell that its sculptor well those passions read
 Which yet survive, stamped on these lifeless things,
 The hand that mocked ①them and the heart that fed;
 [...]

①them의 지시어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 Tell의 목적어인 that절 앞에 Tell의 주어어구로 frown, lip, sneer가 나열어 있고, that절 내에서도 바로 앞에 things가 있어 지시대상이 those passions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일반적인 영어문장에서는 대명사가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them이 these lifeless things를 가리키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물론 산문에서라면 이렇게 서로 다른 명사들이 나열되는 환경에서는 지시대명사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다. 지시관계의 혼동을 우려해서다. 그렇

지만 이 시 역시 셰익스피어류 소넷으로 약강5보격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러기에 세 음절이나 되는 *those/the passions*를 쓰지 못하고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다분하지만 단음절인 *them*을 쓸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이 역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fed* 역시 약강5보격과 각운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them*이 *mocked*와 *fed*의 공동 목적어라면 왜 문장의 맨 끝에 두어(*the hand that mocked and the heart that fed them*) 병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느냐는 문제인데, 셰익스피어류 소넷의 각운구조상 두 번째 4행구는 *cdcd*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형 정동사 *read*와 운이 맞지 않는 *them*이 행의 마지막에 올 수 없는 것은 자명해진다. 그러기에 *them*은 *mocked* 다음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them*을 한 번 더 쓰게 되면 5보격을 어기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2) 숨은 지시관계

일정한 운율과 리듬에 비교적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 자유시에서는 주변의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즉 시의 운율과 리듬을 환기시킴으로써 지시관계를 명확히 하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 율격보다는 문맥 혹은 시 전체의 주제와 부합하는 해석에 적절한가의 여부가 지시관계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은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의 「파테 골짜기 위에서」(*“Above Pate Valley”*)다. 화자는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높은 산 위에서 등산로를 만들다 시내가 흐르는 조그만 초원이 펼쳐진 곳에서 점심을 먹으며 쉬다 화살촉을 만들고 남은 흑요석 파편들을 발견한다. 그것들로 미루어 초원이 사슴들이 여름을 나는 곳이었음을 짐작한 화자는 잠시 상념에 잠겼다 곧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장비를 집어 든다. 시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상념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이다. 그리고 서사가 암시하는 주제를 화자의 상념의 내용을 통해 파악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이 시 전체에서 유일하게 삼인칭 대명사가 들어 있는 ①*They came to camp.*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명사 *They*의 지시체를 무엇으로 파악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린 정오 쯤 등산로
마지막 구간을 완성했다.
능선 꼭대기
계곡 바닥으로부터 6,000 미터 높은 지점이었다.
재에 다다랐고, 계속해서
백송나무 숲 너머로 올라,
거대한 화강암 더미를 지나, 조그만
푸른 초원에 다다랐다. 사시나무가 둘러싸고
눈석임물 시내가 흐르는 곳이었다. 한낮의
해가 중천에서 작열하고 있었다.
흔들거리는 그늘에 앉아
우린 튀긴 송어를 먹었다, 뭔가 반짝였고
나는 얇은 유리 같은 흑요석 조각을 주웠다.
한 송이 꽃 옆이었다. 두 손 두 발로
유카 풀밭을 뒤적였다.
화살촉을 만들고 남은 파편이 수 천 개나
채 백 미터도 안 되는 곳에 널려 있었다. 온전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그저 면도날 같이 얇은 조각뿐.
여름만 빼곤 언제나 눈으로 덮인 산중,
살진 사슴들이 여름 한 철 모여드는 곳이다.
그들도 이곳에 와 진을 쳤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따라왔다. 나는 나의
길을 좇아 여기 왔다. 난 짐어 들었다, 돌 깨는 정,
곡괭이, 망치,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한 부대.
일 만년의 세월이여.

We finished clearing the last
Section of trail by noon,
High on the ridge-side
Two thousand feet above the creek—
Reached the pass, went on
Beyond the white pine groves,

Granite shoulders, to a small
 Green meadow watered by the snow,
 Edged with Aspen—sun
 Straight high and blazing
 But the air was cool.
 Ate a cold fried trout in the
 Trembling shadows. I spied 13
 A glitter, and found a flake
 Black volcanic glass—obsidian—
 By a flower. Hands and knees
 Pushing the Bear grass, thousands
 Of arrowhead leavings over a
 Hundred yards. Not one good
 Head, just razor flakes
 On a hill snowed all but summer,
 A land of fat summer deer,
 ①They came to camp. On their 23
 Own trails. I followed my own
 Trail here. Picked up the cold-drill,
 Pick, singlejack, and sack
 Of dynamite. 27
 Ten thousand years.

대부분의 학부생은 They가 가리키는 것이 fat summer deer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복수형 명사로 유일할뿐더러 They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 camp는 사슴들이 여름 한 철만 머물기 때문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은 사슴을 의인화한 것이 된다. 이런 해석은 시 전체가 설정하는 듯 보이는 문맥과 이어질 수 있다. They를 사슴을 지시하는 대명사로 보게 되면 일 만년의 세월에 걸쳐 높은 산 외딴 평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사슴과 화자가 되기 때문이다. 사슴은 오랫동안 여름이면 이곳으로 옮겨와 단지 풀만 뜯으며 이 평원이 대표 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 지금 화자는, 그리고 화자가 속한 일단

의 노동자들이 대표하는 인간은 다이너마이트와 곡괭이 등으로 등산로를 낸 답시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한쪽은 공존, 다른 쪽은 파괴라는 상극의 구도가 그려진다. 선문에 대한 답인 듯 뜬금없이 내던져진 Ten thousand years.는 그러므로 ‘그렇게 오랜 동안 유지되어왔던 공존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도구, 그리고 인간의 노동에 의해 전유와 유린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된다. 게리 스나이더가 생태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해석의 설득력은 더 강해지는 것 같다.

문제는 흑요석 파편들이다. 그리고 흑요석 파편이 지시하는 것이 화살촉이란 사실이다. 흑요석 조각은 누군가가 화살촉을 만들고 남은 것들이다 (arrowhead leavings). 화살촉을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든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고 그들은 화살촉으로 사슴을 사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흑요석 조각이 수 없이 많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흑요석 화살촉을 도구로 사용하여 사슴을 사냥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They를 사슴으로 상정하여 구축했던 위의 문맥에서 사슴을 사냥했던 사람들은 사슴이 이곳에 온다는 것을 지시하는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 사냥을 했다. 사슴일 것이다. 사슴이 이곳에 왔다는 것이다.’라는 식의 해석에 도움을 줄 뿐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텍스트 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슴이 아니라 화살촉을 만들어 사슴을 사냥했던 사람들이다. 텍스트의 표면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화살촉이라는 도구를 제작했던 작업과정의 흔적은 무려 10행에 걸쳐 자세하게 보고되어 있다. 사슴은 a hill에 대한 부차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동격어구의 일부일 뿐이다.

Not one good
 Head, just razor flakes
 On a hill snowed all but summer,
 A land of fat summer deer,
 ① They came to camp.

또한, 이 문장 전체에서 fat summer deer 다음에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가

있다는 점도 구문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하나의 문장으로서 문법적으로 정상적인 구조가 되려면 They의 자리에 주격관계대명사 who가 와서 They 이하가 deer를 수식하는 관계절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시에서 스나이더는 의도적으로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분사구문으로 부대상황을 나타내긴 하지만 접속사와 정동사가 든 종속절을 가급적 쓰고 있지 않다. 화자의 과묵한 목소리를 살리려 했다거나, 단어를 벽을 쌓아 올리는 벽돌 같은 구성물로 취급하려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이건 이런 의도를 살리기 위해 종속절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summer deer, They came to camp라는 비문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Hands and knees/ Pushing the Bear grass나 meadow watered by the snow에서 보는 것처럼 분사구문으로 처리하면 현재의 문장보다는 훨씬 더 깔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구문은 스나이더가 종속절을 쓰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보다는 화자가 화살촉을 만들고 남은 조각들을 주우면서 그것들을 만들어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한 장치로, 즉 흑요석 파편들과 흑요석으로 화살을 만들어 사슴을 사냥해온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기 위해 Not one good/Head와 They를 콤마로써 구분은 하되 연결을 시켜놓으려 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정상적인 구조라면 이 문장은 Not... deer까지의 명사구로만 구성되는, 그렇지만 화살촉을 만드는 장인이라는 주체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독립된 문장 하나와 They 이하의 역시 독립된 문장 하나로 분리되어야 하지만 이 둘은 그 관계의 밀접함으로 콤마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They를 화자가 의식하고 있던 사슴사냥꾼들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시 전체의 의미구조는 실제 텍스트의 형식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 시의 의미구조는 네 개의 개별 단위로 연결되어 되어 있다. 1행부터 13행까지의 자연 공간, 14행부터 24행까지의 사슴사냥꾼들, 24행부터 27행까지의 화자, 그리고 이 세 요소와 분리되어 마치 허공에 뜬 헬리콥터 엄마처럼 이들을 연결하고 있는 마지막 문장 Ten Thousand years이다. 공간은 사슴사냥꾼과 화자가 공통적으로 찾는 곳이다. 사슴사냥꾼은 자신의 도구 활과 화살을 통해 이 공간과 관계하며, 화자는 자신의 도구와 장비를 통해 이 공간과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시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인간들이 각자의 길을 따라서, 즉 자신들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They came to camp. On their/Own trails. I followed my own/Trail here.).

두 부류의 인간이 조우하는 공간은 은밀하며(사시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특별하다(시에라 사막의 고산지대에 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는 인간 드라마다. 주인공은 사슴과 화자가 아니라 화자와 사슴을 사냥했던 사람들이다. They는 지시대상이 텍스트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분명히 존재하는 화살촉을 사용한 사람들이다. 화살촉으로 촉발된 화자의 상념은 ‘화살촉-->사슴 사냥꾼-->사슴’이 아니라 ‘화살촉-->사슴-->사슴 사냥꾼’의 순서로 진행된 것이다. They는 화살촉 파편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지시대상이 텍스트의 행간에 존재하는 대상을 지시한다고 이해해야만 천년의 세월을 두고 각자의 장비를 들고 같은 장소에 이르게 된 사실을 보고하는 앞뒤의 문맥이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다. 해석에 있어 문맥 파악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3) 단어의 뜻

역시 문맥파악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학부생의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는 잘못된 사전이용법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 일상적인 어법에서 파악하는 의미로 단어의 의미를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사전을 활용한다하더라도 표제어 다음에 열거되는 뜻풀이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문맥에 적절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휘트먼의 「나의 노래」(“Song of Myself”)의 다섯 번째 시에는 문맥 파악과 단어의 뜻 이해가 긴밀하게 연관된 경우가 여럿 있다.

난 널 믿는다, 나의 영혼이여, 또 다른 나는 네 앞에서 몸을 낮출 이유가
없으니,
너 역시 다른 나에게 비굴해져선 안 된다.

나와 함께 풀밭이나 빈둥거리자꾸나, 네 목의 지공(指孔)은 열여뒤,
말은 필요 없어, 특별히 듣고 싶은 음악이나 노래도 없어, 관습이나 강연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런 건 싫어.

내가 듣고 싶은 건 나지막한 소리, 판이 여닫히며 나오는 네 목소리의 읊조림뿐.

[...]

홀연히 피어올라 내 주위로 퍼지는도다, 이 세상 그 어떤 논리도 뛰어 넘는 평화와 지식,

그리하여 나는 깨닫네, 주님의 손이 나 자신의 약속임을,

그리고 주님의 성신이 나 자신의 형제이며,

그리고 지금껏 태어났던 모든 남자들이 역시 나의 형제이며, 여자들은 나의 누이들임을,

그리고 창조의 내용골(內龍骨)은 사랑이며,

그리고 뻗뻗하건 늘어져 있건 들판의 풀잎들과,

그리고 그 밑의 작은 웅덩이에 떠있는 갈색 개미들과,

그리고 뻘뻘썩썩한 울타리 위에 핀 붉은 이끼에서부터 들무더기, 딱총나무, 현삼 넝쿨, 자리공까지 모두 서로 경계가 없다는 것을.

I believe in you my soul, the other I am must not abase itself to you,

And you must not be abased to the other.

Loafe with me on the grass, loose ①the stop from your throat,

Not words, not music or rhyme I want, not custom or lecture, not even the best,

Only the lull I like, the hum of your ②valvéd voice.

[...]

Swiftly arose and spread around me the peace and knowledge that pass all the argument of the earth,

And I know that the hand of God is the promise of my own,

And I know that the spirit of God is the brother of my own,

And that all the men ever born are also my brothers, and the women my sisters and lovers,

And that a kelson of the creation is love,
 And ③limitless are leaves stiff or drooping in the fields,
 And brown ants in the little wells beneath them,
 And mossy scabs of the worm fence, heap'd stones, elder,
 mullein and poke-weed.

우선 ①the stop을 ‘멈춤’이나 ‘정지’로 오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loose the stop from your throat을 ‘목을 푼다,’ ‘침묵을 깨뜨린다’ 등으로 오역한다. 이 경우 loose를 lose로 착각하는 실수까지 겹친 것이다. 이 오역은 곧바로 ②valvéd의 오역으로 이어지는데, 이것 역시 ‘잠금장치가 달린’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hum of your valved voice는 ‘꼭 막힌 너의 목소리가 내는 낮은 소리’ 정도로 번역된다. 이 실수는 ‘숨은 은유’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일어난다. 목을 금관 혹은 목관 악기로 비유하고 있는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목이 악기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음악으로(lull, hum) 비유되고 있는 문맥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설명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문맥을 활용하여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혹은 단어의 뜻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문맥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③limitless다. 일반적인 어법에서처럼 ‘무한한’으로 새기게 되면 시의 문맥은 ‘인간을 포함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한계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다양하다’는 주제를 전달하는 것으로 오해된다. 이 시가 ‘열거’의 수사법으로 유명하다는 점에 혹해서 신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 사이를 관통하는 근본적이며 동일한 원리를 상징하는 초절주의적 세계관이 투영된 이 구절의 특수한 문맥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brothers, sisters, 그리고 바로 앞의 kelson이 형성하는 문맥을 올바르게 짚는다면, “경계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4) 단어의 어원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단어의 뜻을 새길 때 단순히 사전에 제시된 의미를 넘어 그 어원이 암시하는 의미까지 파악해야만 문맥을 제대로 혹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럼으로써

시 전체의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역시 휘트먼의 같은 작품에서 여섯 번째 시에 이런 예가 있다.

[...]

혹은 풀잎은 그 자체가 어린 아이인 것은 아닐까, 식물계가 낳은 아기.

혹은 모두 다 신성한 상형문자일 것이리라.

그리하여 그 의미하는 바는, 넓은 곳에서건 좁은 곳에서건 다 같이 피어나,

흑인들 사이에서건 백인들 사이에서건 자라고 있는,

캐나다인, 버지니아의 투카호에인, 의회 의원, 검둥이 같은 사람들, 난 이들에게 같은 의미를 주고, 이들은 내게 같은 의미를 준다.

[...]

Or I guess the grass is itself a child, the produced babe of the vegetation.

Or I guess it is a uniform ①hieroglyphic,

And it means, Sprouting alike in broad zones and narrow zones,

Growing among black folks as among white,

Kanuck, Tuckahoe, Congressman, Cuff, I give them the same,

I receive them the same.

사전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①hieroglyphic은 ‘상형문자’로만 새긴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제시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 이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의 동일함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 uniform hieroglyphic을 ‘겉모습은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를 가진 아메리카의 거주자들’을 가리키는 은유로 해석한다. 여기서 멈출 경우 shape이나 form을 대신해서 굳이 hieroglyphic이 사용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hieroglyphic의 어원이 ‘sacred writing’이라는 사실이 더해지면 a uniform hieroglyphic은 ‘겉모습은 다르지만 동일한 신성이 깃든 동등한

존재'라는 의미로도 파악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은유가 일종의 '모순형용'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바로 앞의 문맥(the handkerchief of the Lord)을 이어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 문화적 문제: 대가의 영향, 매체의 영향, 세대적 특징

1) 대가의 영향

현재 국내에 출판된 영시관련 단행본 중에는 1970, 80년대 학계 원로들의 선구적인 번역물이 많다. 출판 당시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번역본들이 별로 없었고, 또 영시에 대한 수요도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 수록된 번역은 최선의 것으로 여겨졌고, 그만큼 널리 보급됐다. 게다가, 저자 혹은 번역자가 대학에서 영시를 가르치는 교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학과정에서 실지로 교재로 활용하는 텍스트들을 위주로 목차가 꾸러졌다는 점, 그리고 원로적인 이들의 학계 내 위상 때문에 후학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번역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들 번역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습자들이 주로 참고하는 자료로 남아 있다. 문제는, 어느 번역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이 단행본들이 수록하고 있는 번역에 오류가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원로적인 교수자가 직접 번역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학부생의 경우 그런 오역까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예가 있지만 영시수업에서는 빠지지 않는 텍스트인 엘리엇(T. S. Eliot)의 「프루프록의 사랑노래」(“The Lovesong of J. Alfred Frufrock”) 73-4행과 마블(Andrew Marvell)의 「새 침데기 연인에게」(“To His Coy Mistress”) 41-4행, 그리고 히니(Seamus Heaney)의 「땅파기」(“Digging”) 1-2행만 살펴보기로 한다.

차라리 고요한 바다 밑 후다닥거리며 질주하는
계의 깔쭉깔쭉한 집게발이었으면 싶었다.

I should have been a pair of ragged claws

① Scuttling across the floors of silent seas.

①Scuttling은 기존의 번역본에 “어기적거리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후다닥’ 도망쳐 어디론가 으스스한 곳에 숨어버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가리키는 비유어로서의 역할을 놓치게 된다. “어기적거리느”으로 옮기게 되면 오히려 화자가 ‘여유자적’ 하고 있다는 엉뚱한 해석으로 이어진다. 사전만 확인해도 그 뜻과 함의를 시 텍스트의 문맥에 맞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 문제가 학습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존 번역 출판본의 오역의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굴려 모읍시다, 우리의 모든 드센 힘, 그리고
 모든 부드러움. 한 덩이로 굴려 모읍시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우리 몫의 쾌락을
 삶에 드리운 철대문 밖으로 풀어냅시다.

Let us roll all our strength, and all
 Our sweetness, up into one ball:
 And ②tear our pleasures with rough strife,
Thorough the iron gates of life.

②tear를 ‘찢다’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 문장 전체는 ‘거친 투쟁으로 온힘을 다해 삶의 쇠문을 뚫고 우리의 쾌락을 발산시킵시다’로 번역된다. 역시 기존 출판물에 있는 번역이 그대로 원용되는 경우로서 tear의 또 다른 중요한 뜻인 ‘뜯어내다,’ 혹은 ‘잡아떼다’는 의미를 생각해보지도 않는 것이다. 후자의 의미가 되어야 ‘온 힘을 다해’라는 뜻의 with rough strife가 비로소 의미 있는 구절이 되며,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신경 써야 하는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것들로 방해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청춘과 육체를 즐기자’는 화자의 논조에 맞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나의 엄지와 검지 사이
 땅딸막한 만년필이 놓여 있다, 권총 같이 손에 착 감긴다.

Between my finger and my thumb

③ The squat pen rests; as snug as a gun.

③ The squat pen을 ‘몽당연필’로 옮긴다. 기존의 번역본에 나오는 오역 그대로다. 모든 영어사전이 squat이 ‘짧고 통통하며 무게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형용사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영한사전에서는 이런 의미를 고스란히 살려주는 ‘땡땡막하다’라는 뜻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단지 길이가 짧은, 혹은 짧아진 필기구’로만 생각한다. 필기구 중에서도 이런 특징을 가진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으로는 ‘만년필’이 제격이다. 그리고 그런 뜻으로 새겨야 바로 다음의 유명한 말장난인 snug as a gun에서 snug과 gun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이 무게감이 시 전체의 주제인 ‘뜻 깊은 행위로서의 글쓰기’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매체의 영향

인터넷 같은 매체의 등장으로 영시 텍스트를 구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다. 그리고 학습자 연령대의 청년들은 이런 새로운 매체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지만 이런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영시 텍스트는, 몇몇 전문적인 웹 사이트에 수록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오자나 탈자 등이 많다. 더구나 한국의 학습자들은 대개 시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함께 제공된 번역을 참조하기 위해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텍스트의 정확성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개인 운영 블로그를 주로 이용한다. 오자와 탈자로 학습자들을 골탕 먹이는 텍스트로는 권위를 인정받는 단행본에서도 발견된다. 국내 대학에서 주요 교재로 쓰고 있는 『노튼 미국문학 선집』(*Norton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의 경우 7판에는 특히 부정확한 텍스트가 여럿 있다.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개별과 전체」(“Each and All”) 첫 두 줄과 디킨슨(Emily Dickinson)의 135번 「시계가 멈췄다」(“A clock stopped”) 세 번째 연의 경우만 예로 든다.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들판 저편에 선 붉은 옷의 어릿광대는,
산 위에서 아래를 굽어보고 선 그대로.

Little thinks, in the field, ①you red-cloaked clown,
Of thee from the hill-top looking down;

의사들이 와도 꿈쩍도 않을 것이다,
눈처럼 냉담한 이 시계추는.
수리공이 이리저리 귀찮게 해도
차분하고 무관심한 아니요만

It will not stir for ②Doctor's,
This pendulum of snow;
The shopman importunes it,
While cool, concernless No

①you은 ‘yon’의 오식이다. ‘you’인 경우 Of thee의 ‘thee’와 충돌을 일으킨다. 또한 Little thinks의 주어인 red-cloaked clown와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같은 주체가 ‘you’와 ‘thee’로 다르게 표기됐다는 점이 수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음에도 학습자들이 ‘you red-cloaked clown’을 동격구문으로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해석 자체가 되지 않는 혼란에 빠져드는 것은 전적으로 이 책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다른 텍스트와 판본을 비교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Doctor’s의 경우는 텍스트 해석과 관련하여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킨다. 소유격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오식으로 보기 힘들고, 또 그 때문에 ‘의사의 시계’라는 것이 상정되어 이 시 전체가 언급하고 있는 시계와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19세기 중반 영리를 목적으로 치료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시절의 의사와 현재 가능한 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는 의사를 혼동하는데서 오는 황당한 해석이 제시되기도 한다.

3) 세대의 문화적 특징

학습자들은 주로 20대 초반으로 다른 세대와는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런 문화적 변수들이 영시 해석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21세기 초반 한국 20대 청년 문화는 매우 다양한 특징으로 규정 되겠지만, 여기서 예로 들 경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꼽자면 중산층으로의 편입 또는 중산층 신분 유지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화폐와 화폐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굴곡 없이 안정된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가치관은 사회와 개인 사이의 갈등관계에 주목하는 경향이 짙은 인문학을 오랫동안 전공해온 교수자들에게는 의외로 여겨질 수 있다. 학습자 세대의 이런 중산층 이념이 텍스트의 객관적인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를 플라스(Sylvia Plath)의 「은유」(“Metaphors”)와 오든(W. H. Auden)의 「무명시민」(“The Unknown Citizen”)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난 아홉 음절 수수께끼,
코끼리, 무겁고 큰 집,
두 개의 넝쿨손으로 걷는 멜론.
아 붉은 과일, 상아, 훌륭한 기둥감!
이 반죽 덩어리는 발효로 크게 부풀었다.
이 두툼한 지갑에선 새 돈이 찍히고 있다.
나는 수단, 무대, 새끼 뱀 암소.
난 풋사과를 한 자루나 먹어치운 채.
내릴 수 없는 기차를 타고 있다.

I'm a riddle in nine syllables,
An elephant, a ponderous house,
A melon strolling on two tendrils.
O red fruit, ivory, fine timbers!
This loaf's big with its yeasty rising.
① Money's new-minted in this fat purse.
I'm a means, a stage, a cow in calf.
I've eaten a bag of green apples,
Boarded the train there's no getting off.

‘임신한 여성’에 대한 은유로 9개의 행이 채워진 이 시에서 자신의 임신이란

사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어찌할 도리 없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여정에 비유하는 마지막 행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임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텍스트 전체에 산재한 다른 명사들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코고 무거워 움직이는 것이 아주 거북한’이란 뜻의 ponderous로 수식되는 house(뭔가를 수용하는 공간)라든지, 가느다란 팔다리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고 커진 몸뚱이를 ‘넝쿨손을 다리 삼아 걷고 있는 멜론’은 거의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불편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수업에서 숫자 9를 활용하여 “riddle in nine syllables”의 답을 구하고 난 뒤, 임신한 자신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어조를 물어보면 의외로 ‘유머스럽고 긍정적’이라 답하는 학생들이 많다. 마지막 행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서와 뜻사과를 잔뜩 먹고 난 다음의 거북함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난 다음에야 고개를 가우뚱거린다. 임신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어떻게 확인했냐고 계속 추궁하면 해석 과정에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그대로 적용시켜 임신 현상을 일종의 ‘경사’로 간주하게 된 것임을 고백한다. 그런 착각 혹은 오해를 뒷받침할 만한 구절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는 십중팔구 ①Money’s new-minted in this fat purse를 지적한다. 돈은 좋은 것이고 두둑한 지갑 역시 임신부의 육체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비유라는 것이다. 근대 금융업의 발달사에서부터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의 화폐분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스티븐스(Wallace Stevens)의 ‘은유는 화폐다’는 진술에 대한 보충설명으로도 학습자의 표정에 어린 저항감을 씻어내기 힘들다는 사실은 그들 세대에게 화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웅변하는 것 같다.

(JS/07 M 378에게
본 대리석 기념물은
국가가 건립한 것임)

[...]

이 사람이 자유로웠냐고? 행복했냐고?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다.
뭔가 잘못 된 점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몰랐을 리 없지 않은가.

(To JS/07 M 378
This Marble Monument
Is Erected by the State)

[...]

Was he free? Was he happy? ②The question is absurd:
Had anything been wrong, we should certainly have heard.

이 시의 마지막 두 행인 ②를 발화 아이러니(verbal irony)로 해석할 수 있어 야 시 전체의 주제와 화자의 어조 사이의 괴리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이 시의 역사적, 정치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The question is absurd라는 화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국가가 기념물(그것도 무명용사에게나 바칠 헌사를 새겨서)을 건립할 정도의 인물이었고, 전형적인 ‘중산층’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이었으니 ‘부러움을 살 만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아마 이 시의 화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워줄 것 같은 정도다. ‘소시민’이라는 부정적 어휘가 사라진 뒤,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이 극심해진 요즘 젊은이 세대 특유의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3. 문학성 문제: 문학 관습과 은유

특히 이공계 학생들이(인문계로는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이에 포함된다) 영시를 읽을 때 겪는 어려움으로 문학적 관습 자체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 단순히 문학적 관습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문학 텍스트는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므로 학문으로서의 문학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주로 텍스트 상에 실제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추론하는 활동에 관련된 것이므로 자구상의 엄밀함을 중시하는 연구방법론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수사적 표현, 그 중에서도 지시대상이 그대로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는 숨은 은유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은 자주 발생하는데,

하우스만(A. E. Housman)의 2번 「(아름답기론 최고인 벚나무가 지금)」
("Loveliest of trees, the cherry now")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아름답기론 최고인 벚나무가 지금
가지마다 활짝 핀 꽃을 가득 이고서,
숲속 길 근처에 서 있구나,
부활절 맞아 하얀 옷 차려 입고.

이제, 내 인생 칠십에서
스무 해 이미 지났으니,
칠십의 봄에서 스물을 빼고 나면
남은 봄은 오직 스니라.

활짝 핀 것들을 감상하기엔
오십 번의 봄은 너무나 짧으니,
나는 가련다, 울창한 숲으로,
눈 덮인 벚나무 구경하고자.

Loveliest of trees, the cherry now
Is hung with bloom along the bough,
And stands about the woodland ride
Wearing white for Eastertide.

Now, of my threescore years and ten,
Twenty will not come again,
And take from seventy springs a score,
It only leaves me fifty more.

And since to look at things in bloom
Fifty springs are little room,
About the woodlands I will go
To see the cherry hung with ①snow.

①snow에 대해서 ‘은유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다. 부활절 기간인데? 초봄에 눈이 많이 내렸으니 더 구경같만 하잖아요. ‘눈꽃’이라는 한국어 표현의 영향을 짙게 받은 결과이겠지만 문학 언어의 수사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things in bloom이라는 표현의 용법과 bloom along the bough의 along에 초점을 맞춰 snow가 벚꽃이 만개한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열심히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머리 안쪽 어디선가 드 만(Paul de Man)의 이름이 떠오르면서 이런 종류의 질문에 갖는 급진성이 무서워지기 시작한다. “시는 ‘아’하지만 실은 ‘어’한다”는 리파테르(Michael Riffaterre)의 원론(103)에서 시작하여 문맥, 어조, 용례 등 갖가지 도구들을 동원한다하더라도 문학 또는 시의 규약을 무시하는 독자의 해석이 뻗어나는 방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문학의 문학성에 대한 도전은, 곧 문학의 효용에 대한, 그리고 문학교육의 효용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며 영시 수업을 지도하는 선생의 정체성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III.

답론의 구성에서 내용의 의의에 이르기까지 시 텍스트는 산문을 포함하여 다른 답론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글을 읽는 것이 필수적인 영문과 학생이 시를 읽기 싫어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학습자가 시를 읽으면서 실제로 미학적인 쾌락을 느끼고 구체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수업의 환경에서 시 텍스트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특히 오역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학습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교수자의 개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시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영어 문장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상 일차적 의미 혹은 독자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한 언어적, 문화적, 예술적 경험이 생성, 변용, 축적되는 과정이다.

한국 대학에서 영시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장애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 영시수업에서 교수자의 보다 효율적인 개입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변수들은 해석의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영시 학습자의 텍스트 해석에 왜곡을 낳는 이런 변수들을 대별하면 언어학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리고 문학적 관습과 관련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들 범주가 학습자들의 해석 과정 전체를 포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언급한 각 범주별 구체적인 예와 그에 대한 분석 역시 충분하거나 완벽한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학 영시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업 모델을 구성하는데 이와 같은 연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영시 수업에서 번역/오역을 주목함으로써 학습자의 해석과정을 지도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식으로 번역의 권위를 되찾아주는 길일 수도 있다. 축자적이건 창의적이건 번역은 이미 그 자체로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해석행위로서의 ‘변형’이다. 기의의 순수한 이동을 오염시키는 것들은 칸트적 의미에서 번역자의 경험내용이며, 이 내용은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경험은 물론, 언어의 수사성에 대한 개념까지 망라한다. 그러므로 학부 영시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번역을 활용하여 텍스트 해석을 구성하는 다양한 층위에서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양상과 원인을 확인하는 작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능력의 양성이라는 문학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 참고 문헌

- 레이 초우, 「민족지로서의 영화 혹은 포스트콜로니얼 세계에서의 문화번역」, 『원시적 열정』, 정재서 옮김, 이산, 2004.
- 윤조원, 「번역자의 책무: 벤야민과 문화번역」, 『영어영문학』 57권 2호.
- 윤선경, 「시와번역: 창조적인 번역의 의의」, 『현대영미시연구』 21권 1호.
- 이명호, 「문화번역의 정치성: 이국성의 해방과 이웃되기」, 『비평과 이론』 15권 1호.
- 홍은택, 「번역시의 읽힘새를 위하여」, 『현대영미시연구』 20권 1호.
- Baym, Nina ed. *The Norton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 7th Edition*.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08
- Benjamin, Walter. "The Tasks of the Translator." *Illuminations*. Tr. Harry Zohn. New York: Schocken Books, 1978.
- Derrida, Jacques. *Positions*. Trans. Alan Bass. Chicago: U of Chicago P, 1981.
- Lefevere, André.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Routledge, 1992.
- Matthew Arnold, "The Study of Poetry." *English Literature and Irish Politics*, Ed. R. H. Super (Ann Arbor: UMP), 1973.
- Michael Riffaterre, "Interpretation and Descriptive Poetry: A Reading of Wordsworth's 'Yew-Trees.'" *Untying the Text*, Ed. Robert J. C. Young, London and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81.

❖ ABSTRACT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n Korean English Poetry Reading Classes

Lee, Sam-Chool

To provide a set of data with which instructors may boost the sagging demand for Anglo-American poetry classes, this thesis classifies the kinds of difficulties the students face in reading English poems. Asses to the classification is an analysis on the causes of the difficulties at different levels of the reading process, from the linguistic to the cultural. Arnoldian insight argues that poetry is the best of all forms of writing. Without an ample exposure to poetry, average English majors would barely sharpen the skills that they use to deal with other kinds of writing. To help ease the continuing need for a workable teaching model in English poetry reading classes, this thesis suggests focusing on the kinds of wrong translations produced by the students. According to the theory of cultural translation, any translation, even the wrong kind, is already a product of a very complicated process of interpretation that involves many cultural factors. With the analysis of these factors discovered in Korean college English reading classes, this thesis tries to explain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wrong translations are produced, since these inevitably lead to wrong interpretations of given poetic texts.

Key Words

Korean college English poetry classes, cultural translation, wrong translation, linguistic factors, cultural factors

논문접수일: 2016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0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05일